제 2020-061호

① 필리핀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적발 시 관련 물품 전량 압수 및 사법 처리

마닐라사무소

현황

o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ptical Media Board, 이하 OMB)는 마닐라 소재 투투반 센터몰(Tutuban Centermall)에 위치한 1개 컴퓨터 매장에서 111만 6,000 페소(한화 약 2,728만 원)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 및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기기를 적발, 관련 물품을 전량 압수 조치함.

주요 내용

o 지난 9월 4일, OMB는 마닐라 소재 투투반 센터몰에 위치한 컴퓨터 전문매장 'IT 스테이션'의 OMB 광매체물 유통 면허* 보유 여부 실사 진행

* OMB는 필리핀 내 모든 형태의 광매체의 제조 규제, 유통허가,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및 압수 등 관련 인허가 발급 및 수사·집행하는 기관임. 컴퓨터 관련업체, 음반판매업체, 노래방 기계 판매업체 등 광매체물을 유통하는 모든 업체는 OMB로부터 광매체물 유통에 관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IT 스테이션은 메트로마닐라에 총 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투반 센터몰 지점을 제외한 다른 IT 스테이션 매장은 OMB로부터 광매체물 유통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ㅇ OMB는 면허 검사과정에서 해당 매장이 OMB가 발급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 중인 것을 적발

- OMB 단속요원들은 IT 스테이션의 투투반 센터몰 지점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OS, MS Office 등)가 설치된 데스크톱 컴퓨터 20대, 노트북 31대, 일체형 개인용 컴퓨터 11대, MS Office, Microsoft, Windows 설치파일이 들어있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5개를 발견해 압수함.
- 압수된 물품의 추정액은 약 111만 6,000 페소(한화 약 2,728만 원)임.
- 해당 지점 관계자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함.

ㅇ 필리핀 광매체법(공화국법 제9239호)에 따르면 OMB에서 발급하는 광매체물 유통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관련 장비나 부품, 액세서리 등을 수입, 수출, 소유, 운영, 판매, 유통하는 자는 3년에서 6년의 징역형과 50만 페소(한화 약 1,222만 원)에서 최대 150만 페소(한화 약 3,666만 원)까지 벌금형이 부과됨.

평가

ㅇ 필리핀 내에서 광매체물(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을 담을 수 있는 SSD, USB 등의 디바이스)을 유통, 판매,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OMB를 통한 면허를 반드시 사전 획득해야 함.

- 지난 2017년, 필리핀 내에서 컴퓨터 전문 매장 및 DVD 상영관을 운영하는 한인 사업가들이 현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OMB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하다 판매물품을 전량 압수당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 필리핀 현지 기업의 사내 컴퓨터 등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이 적발되어도 상기와 동일한 압수절차가 가능하므로, 기업들은 회사 내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용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함.

출처

- https://www.facebook.com/1059228224166179/posts/3204027979686182/